

인간 ·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조성

전북은행-전주시-푸른전주운동본부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조성 협약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회복력있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전주시가 추진중인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하여 전북은행 김중원 수석 부행장, 임재원 부행장 및 푸른전주운동본부 정명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협약은 지역은행인 전북은행이 기업으로는 첫 번째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전주시 관내 정원 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3억원을 지원

하고, 전주시는 조성부지의 제공 및 사후관리 등 각종 행정적 지원에 협조하며, 푸른전주운동본부는 정원 조성 및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북은행 김중원 수석부행장은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사업을 통해 전주의 열섬현상 해소와 미세먼지 저감으로 쾌적하고 시민이 건강한 전주가 되길 바란다”며, “향토은행인 전북은행 역시 모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전주가 생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회복력있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전주시가 추진중인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전북은행은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한 전 영업점 여름철 무더위 헛터운영과 생수무료

제공 및 폭염대비 주요요차로 그늘막을 전주시에 제공한 바 있다. /김윤상 기자

‘지금은 대만이 대세’

이스타항공, 대만 신규취항 기념 특가 이벤트

이스타항공이 10월과 11월 신규 취항하는 4개 신규 대만노선을 대상으로 취항 기념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스타항공은 15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27일까지 대만 4개 노선에 대한 특가 항공권을 오픈한다.

탑승기간은 신규 취항일부터 2020년 3월 28일까지로 동계스케줄 전체 기간에 해당한다.

가격은 편도총액임입기준 최저가

- ▲인천-화롄 7만8900원
- ▲인천-가오슝 7만8900원
- ▲부산-타이베이 6만9900원
- ▲부산-화롄 6만9900원부터 예매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29일 인천-화롄(주3회), 30일 인천-가오슝(주4회), 11월 7일 부산-타이베이(주6회), 11월 10일 부산-화롄(주1회) 각각 신규취항에 나선다.

이로써 이스타항공은 기존 김포-송산, 인천-타이베이, 청주-타이베이, 제주-타이베이와 함께 8개 대만노선을 운영하게 됐다.

아울러 이번 4개 신규취항 노선 특가이벤트와 함께 기존 대만 노선들도 일부 특가 운임을 오픈해 판매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eastarjet.com) 및 모바일에서 확인 및 예매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미국에서 ‘한국산 호접란’ 우수성 알렸다

aT, 美유통매장서 최초로 홍보행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35일간 미국 플로리다, 버지니아, 뉴저지 3개 주, 롯데 플라자마켓(Lotte Plaza Market)에서 한국산 호접란 판촉행사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와 aT는 올해 3월 미국시장에 최초로 수출된 한국산 호접란의 우수성을 알리고, 현지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판촉행사는 올해 미국으로 수출된 어린 묘를 미국 플로리다 농가에서 4~5개월 동안 재배하여 꽃을 피운 상품을 대상으로 했다.

한국산 호접란은 뿌리에 이물질이 없어야만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했으나 2017년 12월, 검역협상 타결로 한국산 분화 호접란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미국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35일간 미국 플로리다, 버지니아, 뉴저지 3개 주, 롯데 플라자마켓(Lotte Plaza Market)에서 한국산 호접란 판촉행사를 개최했다.

이에 약 6만 5천분이 수출됐다. 특히, 이번 판촉행사에서는 한국산 호접란의 재배법을 소개하는 안내 리플렛과 태그 부착으로 소비자 친숙도를 높였고, 홍보용 웹사이트를 운영, SNS 및 현지 지역 언론을 통해 한국산 호접란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했다.

현재 미국내 호접란 시장은 대만산이 수입시장의 82%를 차지하는 등 경쟁이 치열한 편이나, 한국산은 대만산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으로 향후 수출확대가 기대된다. /김윤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토스뱅크 컨소시엄의 주주사로서 참여한다고 15일 밝혔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비리퍼블리카가 의결권 기준 34% 지분율의

최대 주주이며, 중소기업중앙회는 KEB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 이랜드월드와 함께 각각 10%의 지분율인 2대 주주로 참여한다.

그 외 SC제일은행이 6.67%, 웰컴저축은행이 5%, 한국전자인증이 4% 지분율로 참여하며, 알토스벤처스, 굿

위터캐피탈, 리빗캐피탈 등 VC가 참여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의 현장 전문성이 (가칭)토스뱅크의 혁신 역량과 결합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 송천초등학교서

‘1사1교 금융교육’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올바른 금융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주송천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사1교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1사1교 금융교육’이란 금융회사와 인근의 초·중·고교가 결연을 맺고 방문교육, 체험교육,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교육은 전주송천초등학교 1학년 130여명을 대상으로 ‘꿈꾸는 경제교실, 내 꿈을 펼쳐라’라는 주제로 나의 꿈과 돈, 직업을 갖고 살아야 하는 이유,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 저축의 필요성 등 각자의 꿈을 그려 발표하고, 이쁜 교육과 동영상 시청을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 눈높이에 맞춘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아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은행 김경진 사회공헌부장은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금융가치관의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수업 방식을 도입하여 금융교육의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보내 많은 학교들이 ‘1사1교 금융교육’에 관심을 갖고 적극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농업인행복센터

정읍 신대인서 주거환경 개선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정읍시 지부(지부장 조천형)·신대인농협(조합장 김성주)·농촌환경지원단이 지난 14일 정읍시 감곡면·신대인읍에 거주하는 돌봄 대상자 4곳에 오래된 도배·장판·싱크대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은 주택의 노후화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께서 농업인 행복콜센터로 상담·접수해 현장지원단의 실사를 통해 지원이 결정하여 지역본부, 정읍시지부, 신대인농협, 농촌사랑국민운동본부에서 지역에 도배, 싱크대 업체와 자원봉사자 등의 참여로 진행됐다.

도움을 받은 고모 씨(83)는 “집 장판과 싱크대가 오래돼서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했는데 농업인행복센터에 전화를 하니 얼마 안 돼서 장판과 싱크대를 교체해 주셔서 너무 행복하다”며 감사에 마음을 전했다. /김윤상 기자

맞춤형 품종 개발 기술교류 ‘맞손’

농진청-한국종자협회 오늘 협약... 분자표지 기술 활용 ‘박차’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농생명기술개발연구사업단과 한국종자협회(협회장 이종우)가 오늘 김제 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 맞춤형 새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분자표지 기술 교류 상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사단법인 한국종자협회는 유량종자육성과 생산, 유통 개선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이번 협약은 육종가, 민간기업 등 농업 현장에서 국가 연구 개발(R&D)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다. 협약을 통해 농촌진흥청과 한국종자협회는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유전체육종 기반 분자표지 정보화 기술과 활용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이전 사후관리 등을 공유하게 된다.

분자표지는 염기서열을 알고 있는 DNA 단편으로, 작물 내 유전체정보를 이용해 특이형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분자표지를 활용해 육종하면 일일이 유전체 해독을 하지 않아도 원하는 형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기존 방법보다 기간은 약 1/3 정도 단축되며,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사업단은 현재가

지 콩, 인삼, 무, 토마토, 포도, 사과, 배, 참외(메론) 등 8작물의 분자표지를 개발해 대량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진청은 한국종자협회 소속 60여 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활용·확산할 수 있는 민간기업과의 교류 기반을 구축하고, 한국종자협회는 농촌진흥청의 최신 유전체육종 개발 기술을 활용해 유량종자 품종 개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 후에는 작물 유전체 육종 분자표지 설명회를 열어 작물별 분자표지(배, 참외, 토마토, 풋마늘, 저항성, 사과 산도억제, 배 화분 유무)와 웹(web) 기반으로 분자표지를 개발하는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다.

농진청 농생명기술개발연구사업단 문중경 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관련 연구 성과가 민간기업의 육종가들에게 활발하게 공유되는 계기가 돼 소비자 맞춤형 신품종 개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정부혁신의 하나로 분자표지 기술이 농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모바일 전용 ‘올원 직장인대출’

NH농협은행 전북본부서 출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직장인을 위한 모바일 전용 신용대출 상품 ‘올원 직장인대출’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원 직장인대출은 본인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농협은행 입출금계좌만 있으면 은행 방문이나 소득증빙 서류 제출 등의 복잡한 절차없이 NH스마트뱅킹 앱에서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한도 및 금리조회와 대출 신청까지 가능한 상품으로, 추후 올원뱅크 앱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와 보험료 납부 확인서의 정

보를 수집하는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해 재직여부와 추정소득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한도와 금리를 산출한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법인기업체 재직자 중 연소득 3천만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5천만원이며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또한, 대출금리는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0.9%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 최저 2.54%(10월 11일 기준)까지 가능하다.

김장근 본부장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많은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농협은행의 금융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사회적경제 인(인) 스쿨 인문학 강좌

도·경진원, 수강생 모집... 18일까지 선착순 접수

사회적경제 이해·사례발표·현장학습 등 다채

전라북도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도민 및 활동가를 대상으로 ‘2019 사회적경제 인(인) 스쿨 인문학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소셜캠퍼스 온 전북 5층에서 진행되는 ‘사회적경제 인스쿨 인문학 강좌’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총 3회 진행되고, 모집인원은 50명으로 오는 18일까지 선착순 마감 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제1강 해외사례 ▲제2

강 유통전문기업 사례 ▲제3강 사회적경제 금융으로 구성되었다. 2회 이상 참여한 교육수료생을 대상으로 수료증을 교부하고, 희망자에 한해 경진원의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경진원 관계자는 “이번 인스쿨은 상반기 수료생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회적경제의 인문학 분야를 강화했다”면서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인독 배양 및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유익한 교육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tkar)를 참조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